

백신·첨단소재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한다

국가 산업정책 관련 184개 품목 대상 정부 “5년간 20만 명 일자리 창출”

정부가 백신,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국가적 산업정책 관련 184개 핵심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

무역보험공사에서 2021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맞춤형 외투유치 전략을 펴기로 했다.

K-뉴딜, 첨단 소부장, 백신 등 첨단품목 중 국내 생산 중이거나 연구개발(R&D)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망 안정에 중요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36대 분야 184개

핵심 유치 품목을 선정한다. 이어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 해외의존도, 기술격차 등을 기준으로 유치 필요성을 고려해 1·2·3순위로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유망 글로벌 기업을 유치 가능성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발굴한다.

올해는 유치 필요성(1순위)과 유치 가능성(상)이 모두 높은 100대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그 외 기업

에 대해서도 유치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도입하는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외투 유치 활동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투유치 인프라 개선과 인력 양성, 외투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형 기자



“송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6·25전쟁 7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유엔 전물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올해로 조성 70주년을 맞은 유엔기념공원에는 6·25 전쟁에서 희생된 11개국의 전물용사 2311명이 안장돼 있다. 연합뉴스

대학도 2학기 대면수업한다

소규모 수업·전문대부터 9월 말 이후 단계적 확대

2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교가 전면 등교 수업을 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에도 대면수업이 확대된다.

대면수업은 우선 대학의 실험·실습·실기나 소규모 수업, 전문대부터 시작해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 점차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

생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수업도 대면수업 우선 실시 대상이 된다. 소규모 수업의 기준은 각 대학이 결정하고, 전체적인 대학별 대면수업의 폭 역시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교육부는 안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5개 대학은 전면 대면수업을 했다”며 “강의실 내 거리 두기가 충분히 되는 상황이라면 1차 접종 완료 전에도 전면 대면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업 연한이 짧고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 역시 엄격한 방역하에 2학기 초부터 대면수업을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 수업과 같이 취업에 위해 필요하거나 대면수업 효과가 큰 전문대 교육과정의 경우 먼저 대면수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 대면수업을 이룬 수업, 대규모 강의, 4년제 일반 대학으로도 점차 확대할 수 있다고 각 대학에 안내했다. 이주형 기자

건설투자부문이사 공모 군인공제회, 내달 7일까지

군인공제회는 24일 건설투자부문이사(CIO) 공개모집 접수를 이날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건설사업 분야 실무 및 관리 경력 15년 이상과 임원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한 자로서 건설사업 신규 투자 발굴과 회원주택사업 용지 확보 및 시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개인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하고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자이다.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3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발하고, 최종 선발된 대상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할 예정이다. 취임 예정일은 오는 8월 중이고 임기는 3년이다.

지원 서류는 우편 제출(마감 당일 15시 도착분에 한함) 또는 군인공제회 인사팀에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지원서 양식 등 건설투자부문이사 공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주형 기자

장진호 전투 정신을 글·그림·사진으로...

무공수훈자회, 작품 공모전 개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김정규)는 24일 “오는 10월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행사를 앞두고 ‘장진호 전투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1회 미술·사진 작품 및 제5회 문예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공수훈자회는 장진호 전투 70주년인 지난해 장진호 전투 전사연구 심포지엄과 사진전을 처음으로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심포지엄과 더불어 미술·사진작품 및 문예 작품 공모전으로 분야를 확대해 개최한다.

먼저 미술 및 사진 작품은 회화·서예, 사

진작품을 공모한다. △장진호 전투의 역사적 교훈과 애국심을 표현한 창의적 작품 △영하40도 혹한의 추위에서 불굴의 투지로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장진호 전투와 연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을 표현한 내용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겐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호국정신을 일깨우는 내용 등이 포함되던다.

무공수훈자회는 대상 1명(상금 200만원) 등 총 49명의 작품을 선발, 시상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7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며, 이메일(tbf@mugong.kr)로 보내면 된다.

또한 문예 작품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6·25전쟁, 장진호 전투의 역사적 교훈과 애국심을 주제로 한 내용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송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내용 △무공훈장 또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내용의 운문(200자 원고지 6매 이하), 산문(200자 원고지 20매 이하) 작품으로, 대상 1명(100만 원) 등 총 22명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문예 작품은 오는 8월 20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tbf@mugong.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홈페이지(www.mugong.kr)를 참고하거나, 공모전 담당자 전화(02-790-9653)로 문의하면 된다. 조아미 기자

